



89.9.29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서 차별 은행 인사규정 성차별조항 개선을

7년 경력을 가진 여자 은행원이다. 직장여성이면 대부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업무를 맡길 때도 단순 반복적인 일만 주고, 업무중 차침부름 정도는 예삿일이다.

얼마전에 은행 인사규정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규정에 남녀차별이 명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행 직급에는 낮은 급으로 행원이 있고 여행원이 있다. 행원과 여행원은 고졸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채용될 수 있는데 여행원은 같은 조건으로 채용된 행원보다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규정을 보면 초급행원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여행원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초급행원 조항의 경우는 '관리자질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되어 있었다. 남녀차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 8월1일부터 조항의 문안은 고쳐져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데 신규채용되는 행원의 '관리자질'을 어떻게 미리 파악할 수 있는가?

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남성은 처음부터 '관리자질'을 인정하여 행원이 되고, 여성은 입행 5년 후에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행원으로 승급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남성과

여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다.

물론 우리 여성들도 이러한 모순점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성차별을 낳는 각종 제도와 사회인식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강영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152 11동5반>

공무원 합격자 25%가 여성 체신행정직 52%로 가장 높아

올해 국가공무원 9급(서기보) 공채 시험합격자 중 여성합격률이 크게 늘어나 전체의 25%에 이르는 1천68명의 여성이 합격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되던 남녀구분 모집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 직종

에서 여성합격률이 두드러졌다. 작년 여성합격률은 10.1%였다. 직종으로는 체신행정직이 가장 높아 51.7%에 이르렀다.

또 국가공무원시험으로는 처음으로 심신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한 결과 3백40명이 응시, 이중 지체부자유인 31명, 시각장애인 1명 등 32명이 합격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남성은 처음부터 '관리자질'을 인정하여 행원이 되고, 여성은 입행 5년 후에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행원으로 승급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남성과

여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다.

물론 우리 여성들도 이러한 모순점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성차별을 낳는 각종 제도와 사회인식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강영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152 11동5반>

올해 국가공무원 9급(서기보) 공채 시험합격자 중 여성합격률이 크게 늘어나 전체의 25%에 이르는 1천68명의 여성이 합격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되던 남녀구분 모집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 직종에서 여성합격률이 두드러졌다. 작년 여성합격률은 10.1%였다. 직종으로는 체신행정직이 가장 높아 51.7%에 이르렀다.

또 국가공무원시험으로는 처음으로 심신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한 결과 3백40명이 응시, 이중 지체부자유인 31명, 시각장애인 1명 등 32명이 합격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남성은 처음부터 '관리자질'을 인정하여 행원이 되고, 여성은 입행 5년 후에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행원으로 승급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남성과

여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다.

물론 우리 여성들도 이러한 모순점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성차별을 낳는 각종 제도와 사회인식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강영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152 11동5반>

올해 국가공무원 9급(서기보) 공채 시험합격자 중 여성합격률이 크게 늘어나 전체의 25%에 이르는 1천68명의 여성이 합격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되던 남녀구분 모집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 직종에서 여성합격률이 두드러졌다. 작년 여성합격률은 10.1%였다. 직종으로는 체신행정직이 가장 높아 51.7%에 이르렀다.

또 국가공무원시험으로는 처음으로 심신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한 결과 3백40명이 응시, 이중 지체부자유인 31명, 시각장애인 1명 등 32명이 합격했다.